

# 서울대학교 학술사, 어떻게 쓸 것인가?

법과대학 법학부 최 종 고

## 서언

대학은 무엇보다 학문공동체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가 중심이다. 학문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특별히 부여된 과제가 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어쩌면 그것을 연구하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위임받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행할 능력과 책임이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일반론이 가장 적용되는 곳이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교가 갖고있는 위상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절대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의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학을 공부하여, 그 중에서도 법사상사라는 다소 특이한 분야를 전공하여 32년 8개월간 교수직에 있다가 정년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만큼 긴 세월을 그 속에 살아왔으니 정년 후에는 훨씬 다른 세계를 맛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런데도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리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동안 몸담고 온 서울대학교가 어떤 곳이었나를 더욱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1988년에 하버드대학교에 있을 때, “하버드의 유명교수는 죽어서 다람쥐가 된다”는 속설을 흥미있게 들으며 캠퍼스의 다람쥐들을 본 일이 있다. 돌아와 <관악의 다람쥐>란 시를 하나 쓰기도 했다. 아무튼 학자는 죽어서도 대학을 떠나기가 힘들다는 얘기일 것이다. 2012년 5월부터 서울대학교대학원동창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엇보다 ‘서울대학교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필자는 정년을 하면서 <서울법대시대: 내가 본 서울대 반세기>(서울대출판문화원, 2013)이란 일종의 서울대학교 회고록을 낸 바 있다. 사실 개인적인 책이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년을 하면서 이런 회고록을 낸 선배교수는 안 계신 것으로 안다. 고 김채운 교수는 박람강기로 유명한 사회학자 겸 족보학자셨는데, 생전에 필자만 보면 함께 ‘서울대학교 야사(野史)’를 하나 내고 정년하고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루지 못하고 가셨다. 필자는 그런 선배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바쁘게 책려하여 부족하지만 본서를 내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법대의 선배교수들만이 아니라 학생시절부터 50년 동안 서울대학교 안에서 알게 된 학자들과의

체험과 인상도 기록하였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학자사(學者史, Gelehrten-geschichte)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물론 책의 성격과 지면 제약으로 알고도 충분히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 서울대학교 학자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을 읽은 후배 제자교수들이, “그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반응할 때 참으로 기쁘다. 왜냐하면 젊은 교수들은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느라고 선배교수들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고, 이런 학자사를 전해 주는 것은 선배들이 해주지 않으면 안될 몫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 어디에도 대학의 역사나 일어나는 일들을 좀 여유 있게 푸근하게 담론할 장소가 아무데도 없다. 현직교수 시절에는 전공의 연구와 강의에 바빠 여유가 없었고, 정년을 해도 명예교수동 외에는 이런 공간이 없다. 대학원동창회에서 이런 취지에서 <대학사 포럼>을 시작하여 매월 서울대학교에 관한 어떤 토픽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실시하고있다. 예를 들면, 작년부터 서울대학교의 학위복이 전면 개정되었다. 종래 미국식으로 딱딱한 사각모의 까만 학위복이 보다 컬러풀하고 우아하게 바뀌었다. 이를 디자인한 생활과 학대학의 김민자 교수를 불러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니 얼마나 재미있고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지 모두 놀랐다. 그래서 그 발표문을 <대학원동창회보>(19호, 2013)에 실었다. 이렇게 우리는 서울대학교라는 거대한 역사적 실체 속에서 너무 한 개인의 경험 폭이 왜소하게 지내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신문이나 매체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너무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것이고 역사나 사상의 깊이를 가진 내용이 드물다. 결국 이런 깊이는 서울대학교 학술사가 정립되어 가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사정 속에서 필자는 서울대학교의 학술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강하게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맨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그 넓은 학문분야를 어떻게 섭렵하느냐,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물음 내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술사의 기본 의미를 모르는 기우이다. 한 사람이 학술사를 한다는 것은 각 분야를 직접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나온 분석과 평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외국에서의 학술사(Wissenschaftsgeschichte) 내지 학자사(Gelehrten-geschichte) 연구의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 I. 학술사의 의의

학술사(Wissenschaftsgeschichte)라는 연구분야는 서양 특히 독일에서 정립된 대학사의 한 분야이다. 대학의 역사를 기구나 커리큘럼의 변화나 발전으로 서술하는 제도사

(Institutionengeschichte)도 있지만, 보다 학문과 학자에 관심을 두고 그 발전의 역사를 추적하는 일종의 정신사(Geistesgeschichte)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술사는 독일처럼 학문의 연륜이 깊을수록 풍부해지는 것이지만, 한국도 이제 현대학문이 1세기를 넘기고 있으니 내용이 적지 아니다. 학자의 세대로 보아도 제1세대에서 제2세대를 지나 제3세대 내지 제4세대에 까지 이르고 있다.

대학이 제도로만 설명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속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의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학문세계를 접근하는 것이 학술사인데, 사실 현대학문이 매우 분화되어있기 때문에 남의 분야를 돌아볼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 II. 서울대학교 학문의 기초

서울대학교의 학술사를 논하려면 당연히 한국의 근대학술사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것은 구한말의 고등교육과 일제시기의 경성제국대학에까지 소급된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말 하겠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의 통합개교 당시 문리과대학은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어문 및 문학, 2부는 사회과학, 3부는 자연과학이었다. 1부에는 국어 급 국문학과, 중국어 급 중국문학과, 독어 급 독어학과, 언어학과, 라틴어과, 불어 급 불문학과, 노어 급 노문학과. (이태리어 급 이어학과, 희랍어과)가 속해 있었다. 2부에는 사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인류학과, 정치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지리학과가 속해있었다. 3부에는 화학과, 생물학과, 수학과, 지질학과, 물리학과가 속해 있었다. 라틴어과나 희랍어과 같이 어떤 과목은 실제 강의가 실시되지않은 분야도 있었지만 이것이 해방후 현대 학문과 대학교육의 기본틀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46년 8월 22일 미군정청 법령 102호에 의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나왔다. 같은해 6월 19일 문교부에서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이 발표되자 닷새후인 24일 대학교수단이 종합대학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었다. 7월 6일에는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통합한다는 문교부 발표가 나왔다. 7월 25일에는 교육협회가 종합대학안의 부당성을 지적 발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서울대학교가 자리잡고 교과목들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같은 해 9월 10~18일에 학생 등록을 받고, 9월 18일에 개교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주동한 ‘국대안’ 반대소요로 12월 18일 3개월만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듬해 1947년 2월에는 국대안의 수정으로 학교의 문을 열었다가 다시 6월에 시험거부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를 찾고 조용해졌다. 그것은 좌익활동이 가라앉는 것과 상관이 있었

다. 아무튼 이렇게 틀잡혀진 서울대라는 제도 속에서 현대적 (서구적) 학문분야들이 재출발하여 연구되고 강의되었다.

### III. 학술사의 방법

서울대학교 학술사의 정리가 공식적으로 시도된 것은 1987년에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40년〉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실로 보인다. 이 결과가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40년〉이란 제목으로 총괄. 인문. 사회과학 편과 자연과학 편의 두 권의 논문집으로 출간되었다. 당시 박봉식 총장은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본교의 개교 40주년을 맞아 향후 15년간을 내다보면서 수립된 〈서울대학교발전장기계획 (1987~2001)〉은 본교의 사명적 기능들을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본교를 ‘국제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연도인 2001년의 본교의 면모를 학문연구, 박사 및 학사급 인력배출, 교육환경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상위급 대학에 비견하는 수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서울대학교는 ‘국제수준의 대학원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이 끝나는 1991년에는 연구에 역점을 두면서 학생과외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풍토가 조성되고, 연구와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 혹은 완비되며, 중요기관이 영세성을 탈피하게 될 것이다. ... 지난 40년 동안 창건과 시련의 시기, 내실화의 시기 그리고 종합화의 시기를 경험한 서울대학교는 향후 15년간 ‘국제화’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sup>1)</sup>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되었는지의 평가는 일단 다른 차원으로 돌리고, 아무튼 불분명한 개념이지만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명분으로 학문의 심화발전을 지향한 것은 사실이다. 이 심포지엄은 총괄적으로 서울대학교의 학문연구 40년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산업과학(공학), 산업과학(농학), 의과학의 6분야로 대별하여 발표하였다. 인문과학연구는 김용직이 발표하고 이인호, 김은전, 차인석이 논평하였다. 사회과학연구 40년은 이만갑이 발표하고 박병호가 논평하였다. 자연과학연구 40년은 조완규가 발표하고 권숙일이 논평하였다. 산업과학 공학편은 이낙주가 발표하고 황종흠, 이면우가 논평하였다. 산업과학 농학부분은 이은용이 발표하고 현재신, 박태식이 논평하였다. 의과학은 이순형, 이흥규, 김명국, 신광순, 김병각이 발표하고 김정순이 논평하였다.

---

1) 박봉식, 서울대학교 40년의 회고와 전망(서문), 〈서울대학교학문연구40년(I)〉,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v-vi쪽.

이러한 총괄적 조명 아래 보다 전공적으로 들어가, 한국 및 중국문학의 연구는 민병수가 발표하고 서대석, 최완식이 논평하였다. 서양문학의 연구는 이상욱이 발표하고 홍승오, 송동준이 논평하였다. 언어학의 연구는 성백인이 발표하였다. 역사학 및 고고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한영우, 이성규, 나종일, 임효재가 발표하고 최병현, 오금성이 논평하였다. 철학, 종교학, 미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정진홍이 발표하고, 한전숙, 김문환이 논평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정치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이홍구가 발표하고 노재봉, 김운태가 논평하였다. 경제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임종철이 발표하고 김종현, 박우희가 논평하였다. 사회학, 인류학, 신문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고영복, 한상복, 이상희가 발표하고 한상복이 논평하였다. 심리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차재호가 발표하고 서봉연, 이장호가 논평하였다. 경영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김원수가 발표하고 신유근이 논평하였다. 법학 연구에 대하여는 김철수가 발표하고 황적인, 심헌섭이 논평하였다. 교육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정원식이 발표하고 김종서, 박용현이 논평하였다.

자연과학에서 현대해석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김종식이 발표하고 김정수가 논평하였다. 입자물리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박봉렬이 발표하고 송성희가 논평하였다. 천연물 연구에 대하여는 장세현이 발표하고 이우영이 논평하였다. 분자생물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홍순우가 발표하고 권영명이 논평하였다. 광물 연구에 대하여는 김수진이 발표하고 김정환이 논평하였다.

공학에서는 기계공학 연구에 대하여는 이교일이 발표하고 임상진, 조경국이 논평하였다. 화학공학 및 원자핵공학 연구에 대하여는 이화영이 발표하고 심정섭, 김창효가 논평하였다. 첨단기술과 신소재에 대하여는 박순자가 발표하고 이동녕, 안태원이 논평하였다. 정보통신 연구에 대하여는 이충웅이 발표하고 인수길, 이상욱이 논평하였다. 건설계열 연구에 대하여는 선우중호가 발표하고 홍성목, 박창호가 논평하였다. 수도육종의 연구에 대하여는 허문회가 발표하고 오봉국, 박효근이 발표하였다. 식품가공 연구에 대하여는 이계호가 발표하고 송계원, 고학균이 논평하였다.

의과학에서 면역학 및 분자생물학의 연구에 대하여는 장우현, 서유현이 발표하고 최규환이 논평하였다. 암 연구에 대하여는 김로경, 김정용이 발표하였다. 측두하악 장애 및 구강편조작 연구에 대하여는 이승우, 고재승이 발표하고 김종원이 논평하였다. 생명과학연구에서 실험동물 이용에 관하여는 이창업, 이영순이 발표하고 이홍식, 임창형이 논평하였다. 약품분석 화학 및 미생물약품화학 연구에 대하여는 박만기, 김병각이 발표하고 심창구가 논평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처음으로 서울대 학문분야를 망라하여 점검한 학술사 연구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와 논평을 맡은 교수들은 서울대 학술사의 방향을 형성하는 학자들로 이들의 견해와 성과가 가치있는 초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0년이 지나 1996년에는 개교 50주년 행사가 있었다고, 이와 함께 학술사 심포지엄이 있

었다. 인문과학 50년의 회고와 전망을 김용직이 발표하고 이태진이 논평하였다. 사회과학 연구 반세기를 임종철이 발표하고, 박병호, 이정호, 한상복이 논평하였다. 자연과학 연구 50년의 회고와 전망을 이인규가 발표하고 송성희, 김수진, 이윤영이 논평하였다. 공학 연구 50년의 시련, 회고와 전망을 김상주가 발표하고 홍석목, 이교일, 이충웅, 이화영이 논평하였다. 농학 연구 50년의 개관과 전망을 한인규가 발표하고, 나용준, 채영암이 논평하였다. 의학분야 연구 50년의 회고와 전망을 이순형, 황상익이 발표하고, 서정현, 안윤옥, 문옥륜이 논평하였다.

인문분야에 들어가 한국 및 중국문학의 연구동향을 민병수가 발표하고 김학주가 논평하였다. 서양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김명렬이 발표하고 김춘진, 김희숙이 논평하였다. 언어학 연구 50년의 회고와 전망을 문양수가 발표하고 고영근이 논평하였다. 역사학 및 고고학의 회고와 전망을 한영우, 이성규, 배영수, 최몽룡이 발표하고 정옥자가 논평하였다. 철학, 종교학, 미학의 회고와 전망을 심재룡, 윤이흠, 오병남이 발표하고 정진홍이 논평하였다. 40주년 이후 10년간의 학문적 변화를 보여주는 토론의 장이었다.

개교 60주년인 2006년에는 이런 심포지엄이 개최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런 연구사의 회고와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IV. 필자의 시론적 시도

필자는 2012년 5월부터 서울대학교대학원동창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서울대학교 아카데미즘의 확인이라 설정하고, <대학원동창회보>지에 ‘서울대 학문의 기초와 계승’이란 연재를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각 학문분야의 가장 시니어교수를 한 분씩 선정하여 후배교수가 선배학자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을 요약 정리하여 집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음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

##### <인문과학>

이희승 선생의 생애와 업적/심재기  
 열암 박종홍의 생애와 사상/소광희  
 두계 이병도의 역사학 /한영우  
 영문학자 권중휘의 생애와 업적/이경식  
 한국독문학의 개척자 광복록/안삼환

<사회과학>

상백 이상백 선생/김경동

한국법학을 세계화 한 유기천/최종고

안당 심태환의 학문적 발자취/김세원

동주 이용희의 생애와 업적/김용구

한국행정학의 기틀을 세운 박동서/윤재풍

<자연과학>

윤일선 선생의 생애와 학문/지제근

화학자 이태규의 생애와 업적/송상용

최윤식 박사와 우리 수학계/박세희

산림녹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현신규/이경준

<예술과학>

현재명의 삶과 한국음악의 어제와 오늘/서우석

장발의 생애와 예술/유근준

필자는 시간 날 때마다 각 분야의 교수들과 이런 방면으로 문의하고 대답하여 원고를 청탁하여 글을 받았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분야에 따라서는 한 분을 ‘개척자’나 ‘선구자’로 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분야도 있다. 말하자면 시기적으로는 먼저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었지만 총장 같은 보직을 담당하거나 외부 직책을 맡아 떠난 경우와 학교에서 연구와 강의에 충실한 경우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객관적 기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고 대체로 서울대학교 학문의 기초를 놓는 데에 기여가 큰 분을 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학문이 어디 한 사람의 힘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가 있으면 ‘계승자’가 있어야하고, ‘계승자’가 더 깊이 발전시키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튼 대체로 이런 시각으로 대략 30여 분야를 섭렵하여 <서울대학교 학문의 개척자들>(가제)이란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출간할까 생각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바를 하나 지적하면, 학문은 초창기에 학자의 수가 많지 않았을 때, 연구 여건이 열악하였을 때라고 지금보다 연구가 저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사명감이 커서 학문적 열의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물론 전문분야별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학문은 주어진 시대마다 대처하고 개척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고 이것이 이른바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학술사 내지 학자사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 V. 부수적 과제

이처럼 서울대학교 학술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하나의 걸림돌로 경성제국대학의 시기가 다가온다. 1924~45년의 22년간의 이 시기는 이민족 통치의 주권상실의 수난기였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기이다. 그렇지만 역사란 기분 좋은 것만 기록하고 카타르시스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도 떼어버릴 수 없다. 한국현대사에 일제시기를 빼놓을 수 없듯이, 서울대학교 학술사에 경성제대 학술사를 잘라내어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법학을 말하면서 1895년의 법관양성소에서 비롯하여 법학전수학교로 계승되어 해방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통합되는 면면한 역사를 단절시키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법관양성소의 졸업생으로 구한말에 모범적 법률가로 법학자로 활약한 이준(1859~1907) 열사를 법대 교정에 2012년에 동상으로 해세운 것도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자연스런 일이다. 미대의 장발 교수, 음대의 현제명 교수의 흉상에 대하여도 친일파라 하여 제거논란이 일시 있었지만, 정치적 해석을 앞세우기보다 그 분야에서 개혁을 위하여 헌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좀 더 한 마디 하면, 한국인은 한국인 스스로에 대해 적극적 평가를 하는 데에 매우 인색하다. 일반인들은 자기보다 나은 남의 약점을 파는 것이 자기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고,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전공에만 매달리다 보니 다른 분야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고 쉽게 평가하기를 삼간다. 지성은 차다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대학교의 초기에 배운 학생들은 대부분 경성제국대학이나 일본 대학들에서 공부한 교수들에게 배웠다. 학술사에서 정치적 배경을 무시할 수 있느냐하는 근원적 문제가 있지만, 일단 학술사는 정치사와는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인이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서울대학교)의 역사가 아니라고 배제하면, 학문의 뿌리와 연결이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해방 후부터 법철학을 가르친 황산덕, 이항녕의 학문을 논하려면 그들이 공부한 경성제대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의 학문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행정학 같은 신생학문 분야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통이 깊은 학문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성제국대학에도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역사는 귀중한 체험이다. 최근 필자가 이충우씨와 공저로 낸 <다시 보는 경성제대>(푸른사상사, 2013)에도 한국인 학생들의 증언을 다수 수록하였고, 그들이 해방 후 우리나라의 요소요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서술하였다.

서울대학교 역사관이 세워지면 여기에 서울대학교의 학술사를 어떻게 보관 전시할 것인가



가? 누구는 서울대 기록관이 있으니 그것을 전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서고(Archive)와 역사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리다. 기록관은 원자료들을 모아나가는 곳이고, 역사관은 그것들을 소화(연구)하여 어떤 방향과 특징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서울대학교 학술사를 연구하여 어떤 체계를 잡고 정리하여 보여 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면 잡다한 건물들로 정신이 어지러운 인상만 받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학문연구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외부방문자보다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관악캠퍼스만이 아니라 과거 경성제국대학과 서울대학교가 있던 동숭동 옛 캠퍼스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대학원동창회와 명예교수협의회를 통해 10월 12일 서울대인의 옛 캠퍼스 홈커밍 행사를 주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서울대학교 학술사의 의의가 현장감 있게 인식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한 학술사의 관점에 가까운 업적으로 우리는 사범대학의 고 한기연 교수의 업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의 정신>(양서원)이란 책을 1991년 2월에 출간하였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지난 반세기 동안(1938-1990) 서울대학교와의 깊은 인연 아래 살아온 사람이다. 한때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1952년 봄부터는 모교 강단에 서게 됨으로써 교수로서 지내왔다. 금년봄 정년퇴임하여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다. ...돌이켜 보건대 내가 서울대학교의 역사 서술에 관여하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20년사>(1946-1966) 편찬위원이 된 데서부터이다. 그때 전체구상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상당부분을 직접 쓰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시금 <서울대학교 30년사>(1946-1976)의 편찬위원이 됨으로써 그 전에 하였던 일의 심화작업이 가능했었다. 그러다가 수년전부터는 <서울대학교동창회보>에 연재물 형식으로 글을 실게 되었다. 이름하여 <서울대학교의 뿌리>라 한 것인데, 2년여에 걸쳐 '서울대학교 정신사'를 써본 것이다. 이제 이것을 한권의 책으로 상배함에 즈음하여 나는 나의 본래 소망했던 뜻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다. 이 자리를 빌려 무엇보다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날 서울대학교의 정초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은사, 선학교수님들의 위대한 학덕과 지대한 공헌에 관해서이요, 이 점 천학비재한 후학인 저자로서는 오직 깊이깊이 고개 숙여 충심으로 감사드릴 뿐이다.<sup>2)</sup>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국립대학교라는 위광 속에서 학술의 업적을 적당히(?) 무관심해와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대학과 같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학술의 성과를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경쟁은 말할 필요가 없고, 교수와 연구자 한 사람

2) 한기연, <서울대학교의 정신>, 양서원, 1991, 5쪽.

한 사람이 더욱 존중받고 학술사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강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서울대 학술사의 정리는 결코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아니다. 다행히 1895년 이후 초기사에 이르는 ‘개학 반세기’의 역사가 학술사적인 관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대학사 포럼을 통해 공론의 장으로 계속 진행되어 간다면 조금씩 정립되고 풍부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